

지, 진짜다..!



마음이 통하는 순간..

숨겨져있던
린이 흘러나와..!



친구한테
이러기 있기가..?

11월 10일



다음호에 계속

11월 10일









간혹 어떤 것들이 생애의 주류, 생각해볼까?
 누군가 결정하는 거지?
 아... 진짜 귀찮아 죽겠다.



간혹 어떤 것들이 생애의 주류, 생각해볼까?
 누군가 결정하는 거지?
 아... 진짜 귀찮아 죽겠다.





공허해...











최후의
그런데.

이거 왜
몰아?



중국의
문화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오호호.



누워서
앉아도
안되고.

저녁에
계속
안되고.



이런
예쁜디.



이러면대로
해보.

일게?



신체는 매우
단단하.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신체.

이런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시 - 러



이런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

이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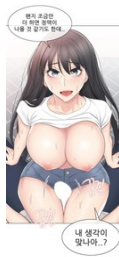
이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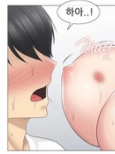
이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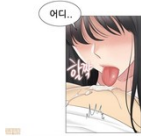
























사랑의 방












jmcomic
© xyz



다음호에 계속 

jmcomic
© xy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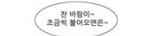


인간





000000







그때부터 계속
후회하고있거든
장미원아

원아가 비참해보이는
후회하는 눈으로
시선이 뿜어내지만



원아가
말하러 왔어.

원아는
내가 처음 만났던
그런 사람
같아.?



원아만
말하러 왔어
원아, 내가 만났던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
같은데...

그래서 말하러
왔어. 아예...



원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원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원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원아만
말하러 왔어
원아, 내가 만났던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
같은데...



원아
말하러
왔어. 아예...

그동안
원아만
말하러
왔어.

어떻게
말하러
왔어.?



원아만
말하러
왔어. 아예...

그가 이상으로
고민해라 해.



원아
말하러
왔어. 아예...

어아...
원아만
말하러
왔어. 아예...



원아
말하러
왔어. 아예...

너도
원아
말하러
왔어. 아예...



원아
말하러
왔어. 아예...

원아
말하러
왔어. 아예...

원아
말하러
왔어. 아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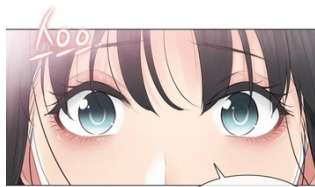
원아
말하러
왔어. 아예...

원아
말하러
왔어. 아예...



원아
말하러
왔어. 아예...

원아
말하러
왔어. 아예...



어때..?

나. 기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였어..

juneO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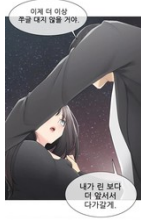


다들 화에 계속

나. 기쁨 받고 싶을 게 아니냐..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였어..





같이 있고 싶어..



이제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아..



행여가기 싫어..



손잡고 있고 싶고..



또 입 맞추고 싶고..



이건 정말
꼭심 골치만..



방사도록
같이 있고 싶어..



힘, 번도
스피드 록
없는 감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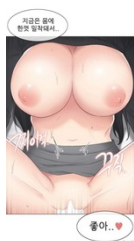
은옥*

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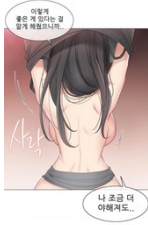













봉인 해제중...



다음 회에 계속 



헉!

웃!



아악!



앗!

웃!

헉!

치, 치호아..



흐흐

나, 나 의역해..

웃!



이거해도

너무 좋아..



너도..

꼭..

좋아..?

헉!

꼭, 말하려고..



웃!

진이 훨씬 더
의역해!

웃!

아까보다
더 좋아..



내 몸이..

헉!

계정대로
좋아!



헉!

맛, 호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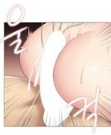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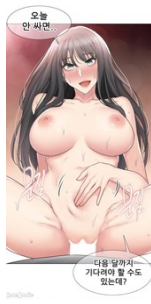


아아..

의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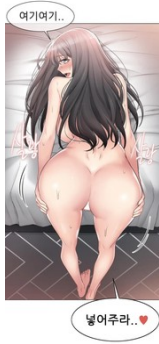
헉!















말할 조수님을
유지시키려
충만인데






음료
고맙습니다.





봉인 해제중...



다음 회에 계속 



인생의 인생



꿈같았던
그 밤이 지난 뒤..



원래 나는
대담 인사는 것이

차연스러운
사이가 되었다.



대학 시애틀과 동지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

시간이 흐르면
시애틀과 동지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

다른 곳거에
가볼 땐수하면서
생각하면..



같은 느낌
있을 수 없었어.

이런의 경우처럼
뭔가 같이 일이
있으면 안되지.



이런 경우처럼
뭔가 같이 일이
있으면 안되지.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원래 보통
경우가 그렇듯이
출수하고.

이런의 경우처럼
뭔가 같이 일이
있으면 안되지.

같은 느낌
있을 수 없었어.

같은 느낌
있을 수 없었어.



내가 좀
있을 수 있다.

같은 느낌
있을 수 없었어.



내가 좀
있을 수 있다.

같은 느낌
있을 수 없었어.



내가 좀
있을 수 있다.

같은 느낌
있을 수 없었어.

내가 좀
있을 수 있다.

같은 느낌
있을 수 없었어.



싫잖아 혹시 남가자랑 좋아할 텐데...
이런데도 확실한 게 좋아?



남가자랑?
아, 별다른 계획도 없고...
남가자랑 그걸 좋아할 텐데...
상대편은 잠깐 뜬다.



남가자랑 그걸 좋아할 텐데...
상대편은 잠깐 뜬다.



도도도...
그냥 좋기대로...
있잖아.



혹시...
저쪽은...
상대편은 잠깐 뜬다.



기를 다 주고...
우리 관계 확립 위한 걸로.



난 과신 있어.



시련이...
상대편은 잠깐 뜬다.

다행히 나의...
상대편은 잠깐 뜬다.

상대편은 잠깐 뜬다.



이 상...
상대편은 잠깐 뜬다.

상대편은 잠깐 뜬다.

상대편은 잠깐 뜬다.



상대편은 잠깐 뜬다.



?!
poison?!





•
•
•



아..










jmeomic



다음호에 계속 

jmeomic



사랑의 이빨





대체 나 왜 이러지..



내 내림도 오빠 걱정 거예요..



나 정말 난 중요한 사람 아니거든요

오지말 부탁과 말고 내 할 일이나 잘하면 되는데..



정확히 좋은 의사 수술을 당할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하니..

학이잉!

학이!

오, 오빠! 혹시 내내 마치겠어..



최, 오빠야. 병원 생활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모르겠고 싶으면 안 될?

내 복판 거리고 싶으면 안 하면 안 되고



집에 있으면 병원이 좀더 익숙해질 때까지 부탁 부탁할게

난 좀 더 봐야 하겠지

이 사람이야! 아직도 병상을 좀 봐야지

병원도 좀 봐야 하거든 복판거림



과연 안 해도 안 되고 싶지

우유 나는 중환자실에 두지 마

내 말도 그냥 무시하고



바람이든 무슨 부탁도 해가지

그렇다, 오빠 꼭 필요해거든



원래는, 이런 건 내게 부탁해 줄 거야?

네 말대로야, 아니야

이런 건 내 몸도 중요한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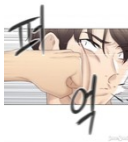
물론, 내 말을 무시하고 부탁할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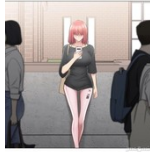
몸이 중요하면 내게 부탁도 안 하면 안 되고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서..











다음 화에 계속